

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중기중앙회, 500곳 계획 조사 좋아질 거란 답변 15.8% 그쳐 금융부담 완화 요청 목소리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한 국내 중소기업 수가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한 기업의 2.5배를 넘어선 가운데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 이상을 나타내면서 낙관적이지 않은 경영 환경을 예고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4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49.8%)이 2023년 경영

환경을 '어렵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다'와 '다소 어렵다'가 각각 16.6%, 33.2%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낮을수록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에서는 '매우 어렵다' 응답이 34.5%로 나올 만큼 많았다.

올해 기업의 경영난 주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수요 위축(47.4%)'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상승(31.7%)' '금리 인상(30.9%)'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39.7%)',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39.1%)'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인력난 심화'에 대해 비수도권(28.6%)이 수도권(17.5%)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

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57.4%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하면서 내년 환경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봤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8%,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5.8%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10억 미만 기업에서는 내년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36.4%)'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48.6%)'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원가절감 및 긴축(42.4%)'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25.8%)' '신규 판로 확대(2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부담 완화(64.6%)'가 가장 많았고, '주52시간제 개선 등 노동 유연화

(35.4%)'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지원 확대(27.4%)'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해 가장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응답기업 절반(50.8%)이 '노동인구 감소'로 응답했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26.6%)' '첨단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2%)'가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고물가·고금리와 같은 경제 회복 위험요소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 비용 증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에 접어들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 개선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부산시·경제진흥원, 성과 교류회 선정된 10곳 대표 한목소리 호평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진행한 '2023 스타소상공인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2023 스타소상공인 성과교류회'를 열고 업체별 성과를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2023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담요, 로터스그라운드, 씨드, 정성깃들, 은유어사이드, 모다라, 별일, 더라스트컴퍼니, 노슈프로젝트, 질링아웃 등 10곳 대표가 참석했다.

해조류 전문기업 '씨드' 박해라 대표는 발표에서 "이번 선정을 통해 부산 시장 미역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며 "지

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제품 개발에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로컬 기반 간식 브랜드 '노슈프로젝트' 김다운 대표는 "스타소상공인 선정에 힘입어 광고협업 등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다른 소상공인 대표님과도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커피 업체 '더라스트컴퍼니' 김범조 대표는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다"며 "기업의 목표와 가치관이 명확해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앞서 지난 8월 부산 소재 우수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하고 성장멘토링 성장지원금(2000만 원)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 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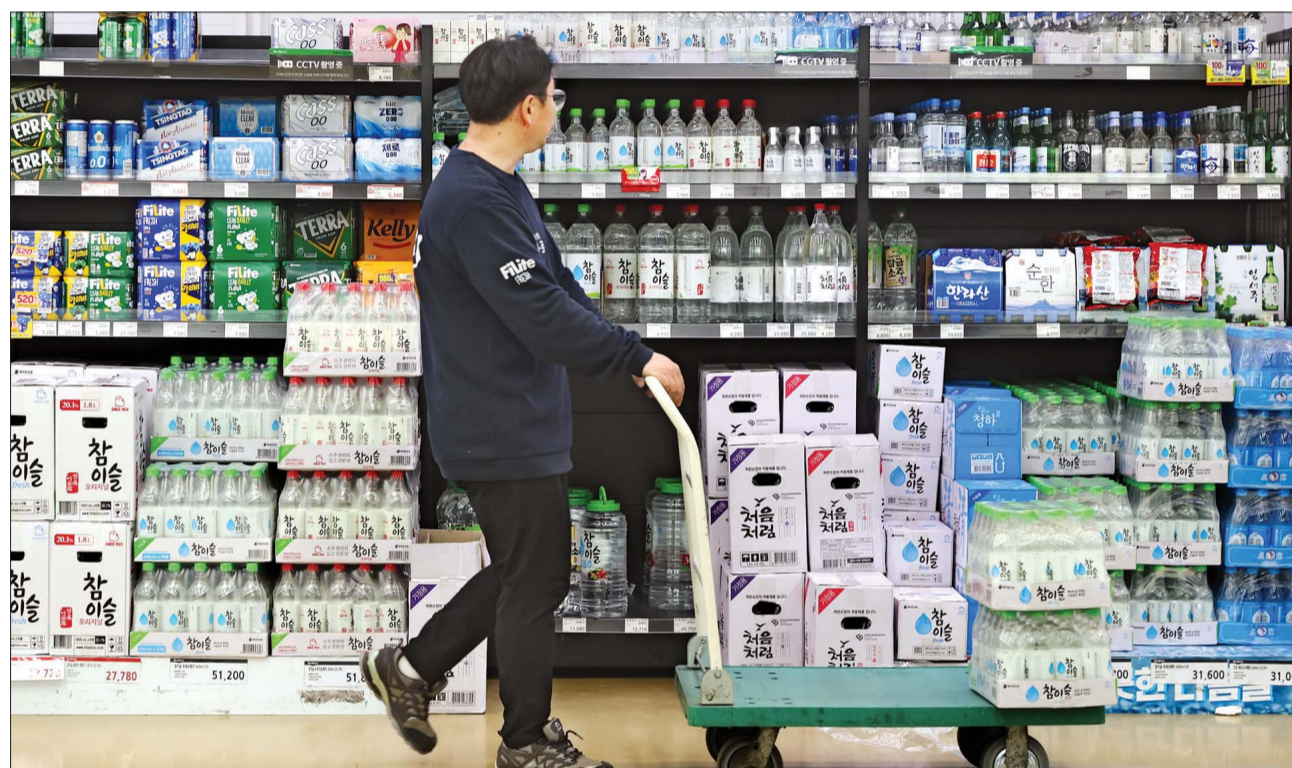
11월 맥주물가지수 114.12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올라 주요업체 출고가 줄인상 영향

지난달 부산 맥주·소주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술자리가 많아 주류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에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맥주 물가지수는 114.12(2020년=100)로 지난해 11월보다 5.9% 급등했다. 지난 1월(6.7%)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맥주 물가(이하 지수 기준)도 5.1% 오르며 지난 2월(5.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 기준 부산 맥주 물가 상승률은 주류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지난해 하반기 6%대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한 올해에는 계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 4월(0.9%)부터 10월(1.0%)까지는 1% 안팎 상승률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달 6%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다시 치솟았다.

소주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 소주 물가 상승률은 1.5%로 지난 2월(9.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상승률(0.2%)과 비교해 오름세가 8배 가까이



지난달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주류 판매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커졌다.

맥주와 소주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은 주류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달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대

표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씩 인상했다. 이처럼 맥주·소주 물가가 오르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도 둔화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전국 '맥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 9월(4.4%)이나 10월(4.5%)보다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낮

추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를 예정대로 종료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지난 10월(3.8%)보다 둔화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호텔 같은 특화디자인 230가구 도시철 양정역과 연결 등 강점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로 주거공간의 혁신을 선도해 온 주식회사 대성문이 분양하는 '시청 아틀리에 933'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 시청 아틀리에 933은 기존 획일적인 평면에서 탈피한 다양한 구성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성문은 시청 아틀리에 933은 아파트 72세대, 오피스텔 158호 총 230가구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로 건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타입인 전용면적 74㎡ 전 세대 4BAY 구조의 패밀리 갤러리 하우스로 지어진다. 오피스텔 타입인 5.3m 층고의 펜트하우스, 1.5룸 타입의 코너 스위트 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백화점을 연상시키는 고급 스퀘어식 상가로 건립된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7번 출구와 자물자 상승률은 3.3%로 지난 10월(3.8%)보다 둔화됐다.



대성문이 분양하는 '시청 아틀리에 933' 투시도. 분양사 제공

바로 연결되는 주거시설은 단 5군데로 희소성이 높다. 내·외관의 심미성도 우수하다. 대성문은 대한건축가협회 신인 건축가상 등 국내 건축상을 다수 받은 건축가와 함께 시청 아틀리에 933의 내부와 외부 모든 공간에 호텔을 연상시키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정초등학교가 바로 옆 블록에 위치해 있어 걸어서 3분 안팎이면 갈 수 있다. 반경 1km 이내에 양동여중 등의 중·고교 부산진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부산시청 연세구경 경찰청 국제청 연세보건소 등 부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도 근처에 밀집해 있다.

정호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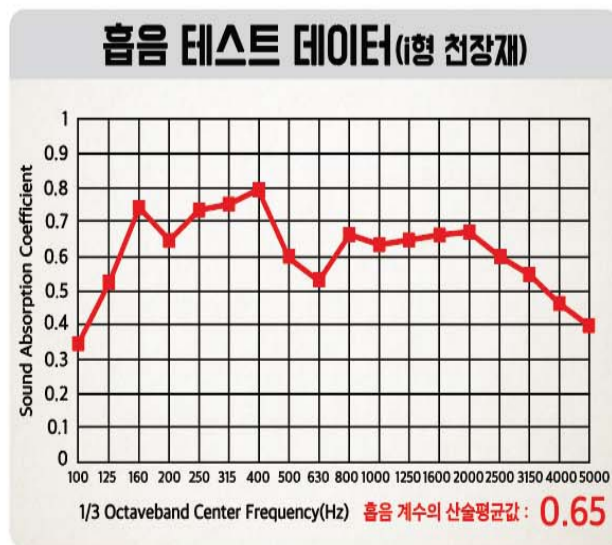


특히기술로 이루어낸 금속흡음용 (불연) 신소재 !

(용도 : 건축 내장재, 천장재,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방음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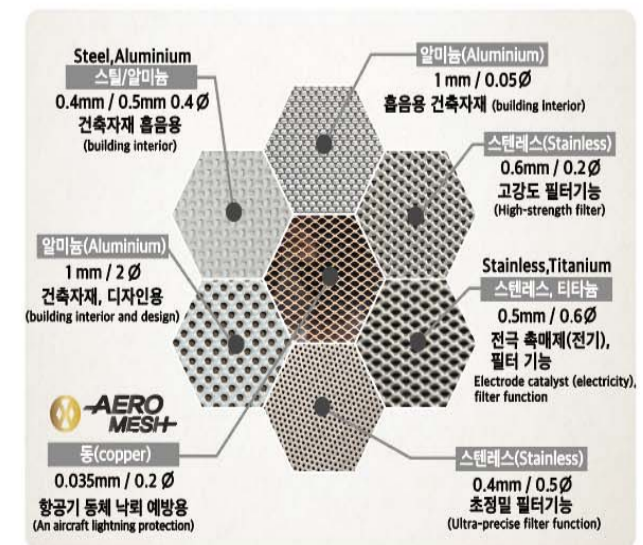
마이코텍스 허니콤 불연제품

제품두께 : 6mm (두께주문시 협의)
알루미늄 금속제품 600mmX1200mm 450mmX750mm



Model : MYCO - i 형 코일

원자재 코일공급 가능



귀하의 제품에 사용 시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 집니다 ! (원자재Coil 생산공급 가능합니다)



www.sungwon.23.com

• 특허 및 디자인 등록번호 : 10-2019-0102904, 30-0977890 (보유특허 6건외, 디자인 16건, 상표5건)
• 본 제품은 발명특허품으로 유사제품 제조 시 특허법에 저촉됩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중

성원하이텍주 | 문의 1899-4512